



지난 8월 시작한 순창군 섬진강 카누체험교실이 최근 관광객의 뜨거운 참여 속에 막을 내리며 향후 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레저산업의 성공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섬진강 카누체험교실 막내러

순창서 3달간 진행한 결과 2500여명 관광객 카누체험 즐겨

지난 8월 시작한 순창군 섬진강 카누체험교실이 최근 관광객의 뜨거운 참여 속에 막을 내리며 향후 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레저산업의 성공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은 올해 섬진강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을 약 3달여간 진행한 결과 2,500여명의 관광객이 카누체험을 즐겼다고 밝혔다. 특히 카누 체험과 더불어 지난해 주민들이 중심이 돼 구상한 섬진강 수상레저연맹에서는 카누 제작교실을 운영해 16대의 카누를 직접 만들어 내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15대를 포함하면 총 31대의 카누를 만들어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카누 한 대를 제작하는데 약 400만원의 비용과 10여일의 공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 스스로 섬진강수상레포츠 산업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안전한 카누체험이 되기 위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총 26명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도 취득해 섬진강레저산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성공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섬진강 수상레저 산업은 동계 장군목부터 풍산 향가까지 아름다운 풍광의 섬진강 물길을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미 지난해 12억 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순창의 섬진강 일대를 농촌문화와 수상레저스포츠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수상레저단지인 변모시킴 계획에 착수한 상태다.

군은 3가지 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함께 공동체 역량강화 물결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마지막으로 농촌문화와 융합한 다양한 체험

이다. 주민들은 수상레저산업의 발전과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스스로 중심되어 섬진강 수상레저연맹을 구성했고 카누제작 및 체험교실을 운영해 대 성공을 거둔 것.

군은 2018년까지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수상레저코스 및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농촌문화체험자원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드루소 쉽터처럼 입어와 관련된 스토리를 복원하고 주말장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섬진강을 전문문화와 레저스포츠가 어울어 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다기능 주차장 사업비 10억 확보

총 사업비 35억6천만원 투입... 시장 기반시설·문화 콘텐츠 등

심민 군수가 임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동분서주한 결과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현재까지 확보한 특별교부세 12억원에 이어 추가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군의 대응력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5억6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시장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다기능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및 도로혼잡을 해소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판매장, 문화공연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구축이후 인프라를 활용해 35사단 군악대, 필봉농악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동인구 유입과 시장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장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장 및 중심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연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일반산업단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전했다.

군은 이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고창 일반산업단지 진입 우회도로를 개설해 향후 남고창 IC와 일반산업단

지, 고창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석정원파크 시티, 백양사 IC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통체계를 구축해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남고창 IC에서 고창읍 소재지로 진입하는 교통물량이 왕복 2차선인 국도 22호선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고

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부족한 지방예산을 메꾸기 위해 올 초부터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매진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비 확보를 통해 균형적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가져

남원시는(시장 이환주) 1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제3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18명으로 교수, 기업인, 행정경험자, 연구원,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제3기 위원 선정은 기존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비공개로 부서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

년으로 2018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자문위원으로부터 정책적 제안을 반기별로 제안 받아 자문내용 분야별로 분류, 회의 개최별 분야를 지정 자문내용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

다.

제3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남원시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 하겠다 라는 소회를 밝히며,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남원시정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상 순창공장, 전통음식 체험활동

초등학교 50여명 대상... 떡메치기·인절미 만들기 등

대상(주) 순창공장(공장장 이상주)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지난 달 31일 순창장류체험관에서 초등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음식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멋스러움을 직접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순창장류체험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추장과 떡을 활용한 피자만들기,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전통튀밥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평소 접하지 못했던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접해보므로써 우리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건강한 식습

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상주 공장장은 "어린이들이 전통음식체험을 통해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더더욱 다양한 체험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주) 순창공장은 지역사회화원의 일환으로 올해로 14년째 순창군 내 어린이를 모집하여, 청정원 어린이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농촌지역 아이들이 리더십캠프, 직업체험, 요리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고구마 홍보활동 벌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고창 고구마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은 고창 고구마 수확체함과 지거래 장터 운영을 비롯해 유통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고창 고구마 전문가 품평회' 등을 적극 개최하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서울랜드에서 고창고구마 수확체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체함프로그램은 고창 고구마 대표브랜드인 '자연터밭'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창 고구마의 생육과정, 특장점 등 체험을 통해 도시 소비자와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서울랜드 프랭키농장에서 서울랜드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창

고구마 수확체함과 지거래 장터를 운영했으며 페이스페인팅과 물젓돌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 시식체험 등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군 관계자와 고창청정고구마가공식품(주), 고창황토고구마사업단을 비롯해 국내외의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통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창고구마 자연터밭 품평회'는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프랭키농에서는 고창 고구마와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외식 메뉴들과 더불어 '자연터밭' 고구마 브랜드 신규 개발상품, 지역의 고구마 관련 상품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자리가 됐으며 유통채널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향후 외식과 가공 소재로 고창 고구마를 유통하는데 협조를 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임실군이 올해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1,168세대를 확정하고 2,0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한다.

확정된 세대는 기준량 대비 5%이상 전기를 절약해 상반기 온실가스 CO2 247톤을 감축했으며, 전기로 환산하면 약 55만kwh를 절감했다.

10월 현재 관내 5,305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int.or.kr)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해 실현한 온실가스감축은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이다"며 "어려운 자연과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감축 정책 일환으로, 군은 지난 2010년부터 가정, 상가, 학교 등의 전기 사용량을 지난 2년 평균 사용량과 대비해 5%이상 절감 시 반기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자연생태팀(☎640-29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특이점

남원 노암동, 집수리 관련 업체 협약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봉근)는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낮은 주택의 균열과 화재위험 등 안전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집수리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부터 동 복지허브와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적절한 자원을 찾기 힘들어 현장 방문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협약 이후에는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급 중증장애자인 김모씨는 오래된 주택의 후미진 곳에서 수도관이 터졌지만 상황은 확인조차 없었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자원봉사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빠르게 신고하였고 동에서는 이를 해당 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박모씨는 비용을 걱정하였지만 협약된 업체에서는 재료비조차 받지 않고 가까이 봉사해 주었다.

그동안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집수리는 사전조사에 의해 계획적으로 일괄 추진하다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그냥 불편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다.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문봉근씨는 이러한 협약을 좀 더 확대하여 전기안전, 수도설비 등 좀 더 많은 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들이 자칫만 불편을 감수하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협의체 차원에서 서비스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한우협회, 한우시식회 개최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 자조금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임실군은 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필기) 주관으로 1일 군민회관에서 한우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운영위원장, 군의원, 한원수 도의원, 전상두 임실축협조합장,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및 한우협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국밥, 한우불고기 등 각종 한우요리를 맛봤다.

김필기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한우가 살아야 임실이 산다'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심민 군수는 "'한우는 민족산업이다'는 슬로건에 걸맞게 한우먹는 날이 범국민적 행사가 되도록 군민들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은 한우가 한민족과 함께한 소중함 존재로 대국민 공감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겨울철 소비 촉진을 위해 제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유족회, 민간인희생자 추모제

6.25전쟁 전후 무고하게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합동추모제가 순창군유족회(회장 조후정) 주관으로 1일 생치면 금평리 위령탑에서 진행됐다.

이번 위령제에는 희생자 유족과 기관단체장,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무고하게 학살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합동추모제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그날의 상처를 안고 통탄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족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6.25전쟁이란 역사적 비극은 아직까지도 큰 아픔과 분노를 남겨놓았지만, 그날의 아픔과 상처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